

5·18 하루 앞인데...사적비 관리 엉망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5·18사적지 제22호인 옛 광주교도소 앞에 설치돼 있는 사적비와 오월길 조형물이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오른쪽은 주민들의 잇단 지적에 이날 오후 사적비를 바로 세우고 주변에 쌓아둔 건설자재들을 치운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5·18사적지 제22호인 옛 광주교도소 앞에 설치돼 있는 사적비와 오월길 조형물이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오른쪽은 주민들의 잇단 지적에 이날 오후 사적비를 바로 세우고 주변에 쌓아둔 건설자재들을 치운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건축업자 무단 점유...조형물 훼손·쓰레기 수북 광주시·북구청 파악조차 못해...주민들 "추모객에 부끄러워"

잇단 지적에 복구 뒤늦게 정비

5·18민주화운동 37주기를 이틀 앞둔 16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앞에는 5·18사적비가 뜬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주변엔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고, 사적비는 무단으로 쌓아둔 건축자재에 덮여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사적비를 관리하는 광주시와 국유지를 관리하는 북구청은 실태조차 알지 못한 채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광주시와 북구 문흥동 주민들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는 5·18 사적지 제22호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주둔한 곳이다. 광주에서 담양·순천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이 곳을 지나던 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을 받아 희생된 곳이기도 하다. 또 계엄군에게 끌려간 시민들이 고

문당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인근 야산에 매장되는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광주시는 이 곳을 5·18사적지 제22호로 지정해 5월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사적임을 알리는 사적비를 1998년 세웠다. 하지만 16일 현재 이곳 사적비는 몸통이 분리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오월길 안내 조형물은 건축자재에 덮여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또 주변에 커피자판기가 놓여진 탓에 흡연구역이 되면서 담배꽂초와 종이컵 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특히 사적비와 그 주변은 국유지로, 도시미화와 경관 유지·보호를 위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건축자재업자가 무단 점유해 건축자재를 쌓아놓았다. 이 업자는 10여년간 이 곳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북구청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5월 역사 탐방을 온 탐방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조차 이 곳에 5·18 사적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5·18 사적지 일제 정비를 위해 사적비를 뜯어냈다고 해명했다. 지자체별 주변 환경에 묻혀 눈에 잘 띄지 않자 사적비를 더 높은 곳에 설치하기 위해 분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적비 방치대가 분리되지 않아 새로 주문하면서 공사가 지체됐다"며 "서둘러 보강공사를 마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5·18 기념주에는 전국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도 5·18기념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까지 사적비를 방치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 김영환(53)씨는 "5·18 사적지가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지자체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추모객들이 광주에 올는데

사적지가 방치돼 부끄럽다"고 혀를 찼다. 지자체들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사적비 설치장소 주변은 민간인에게 임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기간이 남아있어 표시석 정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북구청과 협의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주변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민간인에게 임대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사적비 인근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민간에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무단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북구청은 광주일보가 취재하자 이날 오후 표시석을 세우고 무단 점유해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웠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반발에 막힌 초·중 통폐합...광주교육청 잠정 유보

"의견 수렴 폭 넓게 청취"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반발을 불러온 초·중학교 통폐합(광주일보 1월 11일 1·6면)정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지역민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겠다는 취지지만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교육 정책이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 등을 거치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초·중학교 통폐합과 관련, 폐교 대상 학교별로 학부모와

동문, 지역민,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애초 계획했던 통폐합 추진 일정은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잠정 유보'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반복·후퇴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일으켰다"면서 "학교 구성원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중앙초를 서석초로

통합(2018년) ▲북구 삼정초를 울곡초, 두암초로 통합(2018년) ▲상무·치평중을 치평중으로 통합(2019년) ▲천곡·점단중을 점단중으로 통합(2018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3~4월 33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와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6월 중 폐교 대상 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폐합 찬반 의견 조사를 진행한 이후 통폐합 학교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을 중심으로 통폐합과 관련된 갈등이 커지다보니 교육청 입장만 갖고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서 통폐합 추진 시기·방법 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더 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생들의 졸업 이후 단계적으로 학교를 폐교하는 방안을 비롯, 폐교 대상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도 위원회를 통해 재논의 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이날 예정된 '상무중 통폐합 관련 2차 설명회'를 취소했다. 앞서 계획했던 삼정초(10일), 천곡중(11일) 설명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 등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교육청이 다음달 예정했던 찬반 의견수렴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천곡중 1~3학년 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통폐합 관련 의견을 받은 결과, 200명이 반대 의견을 냈고 상무중 학부모 114명 중 101명도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해질 19:31 달 뜨는 시각 10:24

한낮 초여름 더위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구름이 있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 조금	12/26	보성	구름 조금	9/25
목포	구름 조금	13/23	순천	구름 조금	13/26
여수	구름 조금	14/23	영광	구름 조금	9/25
나주	구름 조금	9/26	진도	구름 조금	12/24
완도	구름 조금	13/24	전주	구름 조금	11/25
구례	구름 조금	8/26	군산	구름 조금	11/24
강진	구름 조금	9/26	남원	구름 조금	9/25
해남	구름 조금	10/25	홍산도	구름 조금	13/21
장성	구름 조금	9/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
남해	남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남바다(동)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해	남바다(서)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	남바다(남)	북서~북	1.0~1.5	북서~북	0.5~1.0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피부질환

◇주간 날씨

날씨	18(목)	19(금)	20(금)	21(토)	22(월)	23(화)	24(수)
날씨	☀	☀	☀	☀	☀	☀	☀
날씨	12/25	14/29	15/29	15/29	15/29	15/27	16/25

세월호 3층서 사람 형태 유골 수습

우현 에스컬레이터 옆 11점...4층서도 2점 추가 수습

세월호 3층에서 차아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주요 유골이 다수 수습됐다. 주요 유골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지난 13일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문 4층 선미 8인용 객실에서 출몰하지 않은 형태의 유골을 수습한 후 두 번째다. 16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3층 중앙부 우현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자리에서 유골 9점을 추가로 수습했다. 또 이 곳에서 수거한 진흙에서 뼈 2점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날 발견된 유골에는 차아 등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 가능한 주요 부위 뼈들이 포함됐다. 신원감식팀은 유골이 한 데 모여있지 않았으나 주요 부위 유골의 경우 크기와 차아 기록 등을 토대로 미수습자 중 한 명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식팀은 DNA 검사 등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현영기자 young@

3층은 일반인들이 주로 머문 곳이지만, 유골이 발견된 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위층과 연결된 회전계단 바로 옆이라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도 자주 이동한 곳이다. 수습본부는 이날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좌편 8인실 객실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다가 작은 크기 뼈 2점을 수습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은 이날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제4차 위원 전원회의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이전 마수습자 수습을 최우선 하겠다"고 밝혔다. 선체 조사는 세월호가 최초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경우부터 시작해 증개축 및 관련 검사, 운항 시작 후 침몰하기까지 세월호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김현영기자 young@

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붙잡아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박모(2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새벽 1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경찰관 김모(57)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은재기자 e16621@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사거리] 누구나 임대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하다!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신남부권인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청을 품은 위치
-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초, 해남대학교,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료, 의료, 미용, 학원, 법조특화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성질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 불가능
- 두번 다시 없을 [101] 프리미엄 가치

분양·임대 **1577-1901**

새한 11주금상
새한 11주금상
새한 11주금상